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교육부문

손 난 주 교수
(Lander 간호대학)

1. 서 론

미국에 와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간호원들의 활동상은 극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한인 간호원들은 미국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간호원이외에도 임상 전문가(Clinical Specialist)로 근무하고 있거나 미국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인 간호원들도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 교수들은 모두 석사과정을 이수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원들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인 교수들의 활동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재미한인간호협회와 미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간호학교(대학) 등분회를 통하여 이들의 활동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간호협회나 간호학교 동문회들도 미국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인교수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상을 정확히 소개할 수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미국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인 교수들의 근무실태를 볼충분 하나마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미국간호대학제도

미국 간호대학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미국 간호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교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간호대학 제도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간호대학 제도에는 2년제(Associate Degree program), 3년제(Diploma program), 4년제(Baccalaureate Degree program) 및 대학원(Graduate program) 등이 있다. 미국대학의 간호학 교수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교수들은 주로 2년제 간호대학, 3년제 간호학교, 및 4년제 간호대학에서 학부학생(undergraduate students)들을 주로 가르친다. 이들 대학의 교수들은 주로 강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강의교수(teaching professor)라고 통칭되고 있다. 물론 연구도 하는 것이지만, 학부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임무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들은 주로 4년제 간호대학, 간호과 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을 주대상자로 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강의교수로 되는 수도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로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간호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교수들도 주로 강의교수와 연구교수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간호학계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는 길혜숙 박사와 이미자 박사는 연구교수의 대표적인 예이고, 본인은 강의 교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강의교수로서 2년제 간호대학(4년제 간호대학으로 신정증이 있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주목적은 강의

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실습지도를 함으로서 간호학을 강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연구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professional growth를 도모하는 개인적인 노력인 것이다.

3. 한인교수들의 현황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한인 간호원의 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원들도 여럿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 석사 및 박사학위 소유자중 과연 몇명이 미국간호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지는 정확한 숫자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서는 약 10명 내외의 한인 간호원이 미국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Rhode Island)에서 정교수로 근무중에 있는 김혜숙 박사와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미자 박사의 두분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로서 미국 간호학계에서도 중견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말하자면 미국 간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교수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정숙박사는 시카고 시립대학에서 교수하시고 최근에 재미한인 간호협회 회장이신 김은자씨와 New York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이원희씨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2년제 및 4년제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로서는 위스콘신 (Wisconsin) 주의 이주인씨, 클렘슨대학교 (Clemson University)의 간호학과에서 ADN (Associate Degree) 프로그램책임교수(coordinator)로 근무하다. 오클라호마(Oklahoma) 주의 간호대학으로 전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하성희 교수(Mrs. S.H. Gwak), 로스앤젤레스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서교수, Florida 주의 강재욱교수, 시애틀(Seattle) 지방의 장봉선교수 위스콘신 주의 강덕희씨가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분의 한인교수가 미국 간호대학에서 교편

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으며 L.A. 지방과 달라스 지방에서 R.N. 수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첨가하여야 겠다. 다음으로는 김혜숙박사와 이미자박사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또한 아울러 저의 활동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a. 김혜숙박사(Hesook Suzie Kim, Ph.D.)

김혜숙박사는 현재 University of Rhode Island 간호대학의 정교수로 근무중에 있으며 미국 간호대학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이다.

김박사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교에 재학중 도미하여, 1962년에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간호학과 사회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다음해에는 동대학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에 Brown University에서 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77년 같은 대학교에서 역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박사는 다른 한인 교수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 기초간호과정(BSN)을 수료했기 때문에 미국간호사회에 적응하는데 편 유리하였다. 김박사는 병원에서 잠시 간호원으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간호학 교수로 행정가로 일관해 왔습니다. 1973년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 간호대학의 부교수를 부임한 이래, 내과-외과의 책임교수가 되었으며, 1979년 정교수로 승진된 후에는 한때 Assistant Dean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우선 그동안 발표된 박사의 논문만 하더라도 43편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연구과제도 여럿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및 전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을 비롯하여 14개의 미국 간호단체의 회원입니다.

이미자 박사(Mi Ja Lee, Ph. D.)

이미자 박사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1962년도) 출신으로 1966년 미국에 이주하여 온 이래, 시카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재 일리노이 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로 현재 내과-외과

의 과장대리로 근무중에 있다. 1968년까지 2년 동안 임상에서 평간호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수간호원으로 승진되어서 3년동안 근무하였다. 이 박사는 1975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생리학(physiology)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4년 일리노이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그 대학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연구교수로서의 이박사의 활약은 광범위하고 특출하여 미국 간호학계에서도 손꼽히는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번 여름에 미국 간호학계의 대표로 두명의 미국 간호지도자가 선정되어서 쓰런으로 가서 미국 간호학계를 소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박사는 이들 두명중의 한분이라는 것을 보아도 미국 간호학계에 있어서의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9년에는 간호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간호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Nursing)의 초빙연구원(elected fellow)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이박사의 연구활동도 활발하여 1982년에 Classification of Nursing Diagnosis를 편저하여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88편의 논문을 각종 간호학회, 세미나 및 워크숍(workshop)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편의 논문이 단독 내지 공동형식으로 여러 종류의 간호학회지 및 학회록(proceedings)에 수록 간행되고 있다.

이박사는 미국 간호협회를 위시해서 여러 학회에 소속해서 팔복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병원 및 간호대학등에서 자문역할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도 활발하여 시카고 지역의 심장 협회와 폐협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c. 손난주교수(Nahn Joo Chang. MSN)

저의 경우는 미국간호대학에서 학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인 교수의 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1962년에 졸업한 후 강릉간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67년에 도미하여 미국병원에서 평간호원으

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1974년 켈러 대학 간호학과와 임상강사(clinical instructor)로 근무한 후 지금까지 같은 대학에서 간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신교수직을 보장하는 테뉴어(tenure)도 받았고 현재는 5명의 미국인 교수와 강사를 지휘감독하는 일학년 담당주임교수(Freshman Coordinator)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수가 되기 위하여 미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유학은 남편의 학업을 재정원에서 돕기 위하여 간호원으로 취업하러 온 것입니다. 저와같은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온 한류 간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7년 미국에온 이후 간호원으로 7년동안 미국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한국 간호원이 미국병원에서 처음 근무할 때 언어장애와 생활변화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나의 동료인 한 한국간호원의 심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세스 장, 매일 출근시, 병원건물이 저 빌딩에서 보일때마다, 이제 또 저 고향의 문속으로 들어 가는구나 하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난다. 이것은 그녀가 미국병원에 취직한지 두달남짓 되었을때 한 하소연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아래서, 한국간호원들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한국간호원들의 부지런함과 성실성도, 또한 미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제가 처음에는 졸업간호원(Graduate Nurse, G. N.)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미국병원에서 정식간호원(R.N.)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G.N.으로 일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무척이나 손상시켰다. 그래서 나는 R.N.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미장한 결심을 하였다. 지금은 미국의 로스안젤리스(Los Angeles)나 그외의 여러 매도시에서 R.N 시험준비를 위한 수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간호원들의 R.N 시험합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제가 도미 할 당시만 해도 한국간호원이 미국의 R.N 시험에 합격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아서 거의 불가능

한 일로 간주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번 망서 리기도 하였지만 시험준비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간호원으로 병원에서 하루종일 고달프게 일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가정주부로서 하여야 하는 일이 산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간호원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주부로서의 산적해 있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시간가는대로 꾸준하게 시험준비를 하였다. 그 두터운 책들을 한자 빼 놓지 않고 몇번이나 통독하였다. 첫번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은 물론 아니다. 실패한 과목은 발표된 날부터 다시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와같은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전과목을 합격하여 마침내 정식간호원(R.N.)의 면허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간호원으로 미국간호원 면허를 갖추고 있다는 긍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미전에 한국에서 간호학교 강사로 근무하였고, 교수직을 원했던 저는 평간호원으로 저의 간호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교편생활에 도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언어문제등으로 평간호원보다 교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Maslow의 Need hierachy 중의 esteem need의 self-actualization need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을 억지하기 힘들었다. 미국의 대학원에서 간호학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정하고 Medical College of Georgia (Augusta, Georgia에 있음)의 간호학 석사학위(MSN) 과정에 등록하였다. 저는 미국에서 학사과정(BSN)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간호교육에는 모르는것이 많았다. 그리고 언어도 공부하는데 큰 장애층의 하나였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중에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학교성적은 이의로 좋았고 장학금도 타게 되었다. 입학한지 1년반만에 때마침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나서 조교수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사람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 저와같이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다 마치고 온 사람들은 영어실력의 향상이 부진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대학에서 미국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문제로 인하여 수모를 당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교실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병원에서는 임상실습지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교재준비를 하고 학생들의 숙제를 체크하느라고 밤잠은 걸르는 때가 다만사였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과장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Mrs. Janet Sipple 이라고 하는 이 과장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 본 미국인 가운데서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 하겠습니다. 이 과장은 제가 실망할 때마다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와같은 이해심 많은 과장이 없었던들 나의 오늘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한 과장은 평교수인 저에게 처음으로 Skills Lab의 Coordinator의 직을 맡겼습니다.

이 Skills Lab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더니 과장은 지금까지 전례없이 가장 잘 조직된 Skills Lab을 운영했다고 다음해에는 일학년 전체의 주임교수(Freshman Coordinator)의 직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학교의 간호학 program은 2년제로 간호학 과장이 있고 그 아래 1학년과 2학년의 주임교수가 각각 있다. 각 학년에는 Teaching team이 있어 Coordinator가 이 teaching team을 지휘해서 교과과정을 완전히 계획, 연구, 준비하고 강의와 임상실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1학년 teaching team에는 6명의 평교수와 임상실습 instructor가 있다. 1학년의 학생수는 평균 50~60명이다. teaching team의 6명의 교수들은 한과목을 6사람이 나누어 각자 자기의 부분만을 강의합니다. 이 6명의 교수들은 모두 임상실습에 나가는데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1:7 내지 1:10 입니다.

한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조직체내에 있어서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런 면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가해야 하는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는 정성껏 준비하여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저는 한국음식의 전문가로 소문이 났고 파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인간으로 하여야 할 도리를 성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한국인이 없는 이 도시에서 저의 일거일족은 미국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표본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동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에 각별히 조심해야만 하며 관직없는 의교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대학의 간호학교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발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South Carolina)의 Upper-Savannah 지역간호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간호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으로 미국사람들은 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 간호원으로서의 책임과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간호계에도 공헌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현재 재미한인 간호협회의 미등부지

역 이사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4. 결 론

미국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인 교수들의 수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인 간호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올 때 대부분이 간호원으로 취직하러 온 것이지만 간호학생으로 유학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한인 간호원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간호대학 이외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원들이 많다.

적은 수의 한인 교수들 중에서 김혜숙 박사와 이미자박사의 경우와 같이 미국 간호대학의 교수로서 학회와 간호계에 중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 간호원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학교수로 또한 평간호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늘 한국간호 발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년제와 4년제 간호교육제도와 여러곳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과 더불어 간호협회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한국간호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간호원들의 마음속에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